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찬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춘계 부흥사경회

주제: 초대교회 이야기
일시: 3 월 31 일(금) - 4 월 2 일(주)
강사: 정민철 목사(뉴하트선교교회)

- 3/31 (금) 오후 8 시: 교회의 시작(사도행전 2 장)
- 4/1 (토) 오전 6 시: 교회의 첫번째 설교(사도행전 2:14-41)
- 4/1 (토) 오후 8 시: 초대교회의 성도의 교재(사도행전 2:42-47)
- 4/2 (주) 오후 12 시: 성도의 죽음(사도행전 7:54-60)

- 사순절 기간 동안 Community 교회들이 연합하여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수요일(3 월 29 일)은 PUMC 에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3 월 29 일 오후 6 시 본당입니다. 예배 전 간단한 Soup 을 제공합니다.

- PCA(미국장로교) 한인동북노회가 4/18(화)에 있습니다.

- 담임목사는 다음 주일(4 월 2 일) 플러싱 하늘샘교회 일일 사경회를 인도하러 다녀옵니다.

2017 년 3 월 안내: 이향복 집사
다음 주 기도: 김종한 장로/시편 130 편
이번 주 친교: 이영순/전영자 권사
다음 주 친교: 김경화/아정자 권사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 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민영 목사 914.874.3606(C) mylee4x@gmail.com

예배/지휘 전도사: 이상민/중고등부 전도사:Edwin Kim

유년부 간사: 안정자/만주자: 윤미경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주일에배순서

2017년 3월 26일 인도: 이민영 목사

-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다 찬양하여라”
-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 찬송 (Hymn) 154 장(통 139 장) 다함께
“생명의 주여 면류관”
- 대표기도(Invocation) 시(Psalms) 23 편 홍성훈 집사
- 찬양(Choir) “사랑이 예 오셨네” 세광찬양대
- 봉헌기도 인도자
-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갈(Gal.) 3:25-29 인도자
- 설교 (Sermon) “한없는 은혜” 이민영 목사
- *찬송 (Hymn) 526 장(통 316 장) 다함께
“목마른 자들아”
- *축도(Benediction)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체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2017. 3. 19. 주일설교 요약

시작한 대로 (갈 3:1-14)

처음 믿을 때에 비해 여러분의 지금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리석도다”라는 심한 책망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한 믿음 생활을 이제 육체로, 율법으로, 자격과 공로를 자랑하는 것으로 마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게는 마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 은혜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헛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이 어리석음은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해야, 나아가 율법을 지켜 내세울 게 있어야 제대로 된 믿음인 것처럼 여긴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도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와 율법과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데 왜 이제와서 다시 율법과 할례로 돌아가려 하느냐는 질책입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여 저주 아래 묶었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께서 우리 대신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저주가 되게 할 정도로 절망적인 율법의 행위를 왜 다시 자랑하려는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교리로는 다 아는 애깁니다. 우리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자랑이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씀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내세울 게 있고 남들이 알아줄만한 자랑과 공로를 의지하려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은혜로 구원받은 게 시작인데 왜 그 은혜가 점점 퇴색해지고 공로를 자랑하다가 정죄와 판단과 자책만 남게 되는 걸까요?

시작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의롭다 하신 것은 이전에 지은 죄를 묻지 않을테니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죄짓지 말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취급을 해주신 거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관계로, 그 특권과 책임과 도우심과 열심의 삶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신분과 정체가 바뀐 겁니다. 은혜로만 살게 하신 겁니다. 죽어도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면 상상도 할 수 없던 도우심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걸 모르고 내 힘으로 하려 합니다. 은혜로 조금 살만해 졌으니 이제 열심히 일해서 갚으려 합니다.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은 기쁨은 곧 사라지고 조금 해보다가 여전히 죄인인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물론 다시 통회하며 자복하면 또 용서해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도 반복되다 보니 염치가 없습니다(사실 하나님의 용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염치가 한계입니다). 뻔뻔한 사람은 타협하고 핑계대며, 좀 예민한 사람은 자책하며 절망합니다. 둘 다 은혜를 잊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루기도 하고 남들이 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합니다. 십자가는 안 보이고 높이 솟은 십자가 탐만 보입니다. 은혜는 안 보이고 업적과 성취만 보입니다(1절 참조). 이런 사람들은 풀처럼 헛된 것, 불타버릴 지푸라기를 의지했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뒤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 우리를 살리시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 모욕을 참으셨는데, 주를 위한다 하면서 당장의 성취와 영광을 바라보다 십자가를 놓치는 어리석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의 십자가가 든든한 삶. 당장 지는 고난의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삶. 이것이 시작한 대로 마치는 삶의 비결입니다. 이 길의 끝에 틀림없이 영광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가는 길 동행하셔서 사막에 샘이 넘치게 하십니다. 처음 믿은 새롭고 놀라운 은혜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늘 주십니다. 괴로움과 고난이 헛되지 않습니다(4절). 여전히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십니다(5절).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희미한 기억이 아니라, 퇴색하는 것이 당연한 화려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할 수 있고, 체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